2020 새 설계 김종식 목포시장

"에너지·수산식품·관광 3축, 목포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

"민선7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뼈대인 '3대 빅 피처'의 밑그림이 완성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채색단계인 미래 먹을거리의 주춧돌을 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향후 10년 혹은 30년 후 목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하는 문제를 줄곧 고민해 온 김 시장은 새해를 맞아 "그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선창과 조선경기'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으로 무게중심을 변화시켜 나가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3만 목포시민을 먹여 살릴 테마는 '신재생 에너지와 수산식품'에 '관광'을 더한 3대 미래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김 시장의 신념이자 시정철학이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올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꼽았다.

지난 한해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를 앞세워 맛의 도시 선포, 슬로시티 목포, 목포 가을 페스티벌 등 관광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목포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조성에 힘을 실으면서 민선 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두번째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특히 김 시장은 "2020년은 목포의 해가 될 것이다. 1천만 명 관광 시대를 열어 더 크고 위대한 목포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로드맵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시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끌고
적극행정 펼치도록 풍토 조성

먼저, 국가 에너지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대양산단과 목포신항을 기반으로 에너지산업 육성을 미래먹거리 전면에 내세웠다.

시는 현재 다각도로 노력 중인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배후단지 조성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걸로 보고,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충원해 전략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또 서남권 친환경 종합지원단지(2020년)와 수산식품 수출단지(2022년)는 수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산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 시장은 설명했다.

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수출·연구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냉동·냉장·판매 시설 등을 구축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양한 매력이 있는 관광 거점 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확충'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일상이 변화하는 행복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게 김 시장의 구상이다.

실행 방안으로 식도락 여행,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 공간 등에 더해 평화광장 해상 불꽃 쇼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기존 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슬로시티에 걸맞은 슬로우 아일랜드,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고하도 호남권 생물자원관·역사유적공원, 삼학도 남도 문예 전시컨벤션 유치, 평화광장부터 해양대 해안을 잇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같은 공격적인 시책 추진과 함께 내적으로는 '공감을 높이는 행정 실현'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시장은 "공직자들의 오랜 복지부동 관행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저변에 깔려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다칠 것을 우려해서다"면서 "실무진이 이런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간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턱대고 적극행정을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실무진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주고 무엇보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전문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올해 목포의 3대 미래전략 사업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목포가 변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고 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며 목포의 도약에 시민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2020년 주요 사업은

▲해변 맛길 30리 조성
▲수산식품 수출단지 착공
▲근대역사문화 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평화광장 리모델링
▲삼학도 천년의 숲 조성

목포시, 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 유치 성공

목포시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 및 어항의 개발·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해 1987년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출발해 2018년 10월 공단으로 승격했다.

현재는 어촌뉴딜사업과 어장 환경정화, 양식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목포시는 서남해의 거점항 역할을 하는 수산업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가 부산권에 집중되면서 견인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전무해 이를 해결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7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역으로 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공단 관계자들이 목포에서 현지실사를 진행한 뒤 11월 공단 이사회에서 서남해지사 목포이전을 의결했으며 12월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는 1월 중 목포국제여객선터미널 2층에 개소할 예정이며 전라남·북도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어촌어항공단 본원이 목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우리지역 수산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안전도시 만들어요…목포소방서 2019년 화재 분석 발표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맞춤형 재난안전대책 추진과 주민이 안전한 목포시·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2019년 화재발생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와 신안지역에서 총 21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목포시가 147건(70%), 신안군이 63건(30%)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목포시 산정동 소재 상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4억 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2월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촛불 취급 부주의로 사망 1명과 1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화재가 있었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가 57.61%(121건), 전기 27.61%(58건), 임야·기타 18%(38건) 순이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11억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대비 화재건수는 9.9%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116.7%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도 1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가 57.61%(121건), 전기 27.61%(58건), 임야·기타 18%(38건) 순이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므로 화기취급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올바른 전기용품 사용과 전기설비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 행안부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우수'

원가 22.4% 절감 등 성과
인센티브 5000만원 확보

목포 몽탄저수장 전경.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111개 기초 상수도 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등의 5개 지표를 평가했다.

등급은 대학교수와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한 후 기관별로 확정됐다.

목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열악한 상수도 재정여건 속에서도 유수율 제고 등 영업비용 절감 및 불용재산 매각을 통한 영업외수익 증대로 전년대비 22.4%의 원가 절감을 이뤄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 경영효율화 실적이 우수한 10개 지자체를 인센티브 지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목포시는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됐다.

김형석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이번 경영평가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상수도 경영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YHB ECO/ 주식회사YHB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절삭유 교체 X 미세 칩 제거
연/절삭유 부패방지 슬러지 악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광주공장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 (02) 2029 - 6400 ~ 3